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에 대한 할머니들의 해석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f Interpretations of Grandmothers' Childrearing Experiences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 사 안 희 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복지전공
교 수 김 선 미***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Gwangju University
Ph. D An, Heelan
Dept. of Family Welfare,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Kim, Seonmi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interpretations of grandmothers' experiences rearing their grandchildren. For this study, 13 participants provided in-depth interview data, which was analyzed according to Spradely's ethnographic method. Based on the pattern of interpretations, nine concep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i) repentance (compulsive decisions, passivity of the childrearing activity, non-compensation); (ii) sorrow (restrictions on everyday life, renunciation of occupational careers, worsened health); and (iii) satisfaction (decreased isolation in old age, proof of existence for their children, intimacy development with their grandchil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grandmothers have a higher appreciation for the benefits of relational compensation than for personal cost. Some practical implications are suggested to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C00003).

** 주저자 : 안희란(morkyang@naver.com)

*** 교신저자 : 김선미(yupy1005@hanmail.net)

improve family welfare.

Key Words : grandchild-rearing(손자녀양육지원), ethnographic case study(문화기술적 사례연구), grandmother's interpretations of the rearing experience(조모의 양육지원 경험 해석)

I. 서론

2012년 기준으로 510만 맞벌이 가구 중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자녀 육아를 맡은 가구가 절반(25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두 명 중 한 명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고 있는 것이다(통계청, 2013).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자녀 양육지원¹⁾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행크와 부버(Hank and Buber, 2009)는 유럽 10개국의 자료를 비교하여 할머니, 할아버지의 양육지원 빈도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에서 높았음을 밝혔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자녀 양육지원은 조손가족의 조부모 이외에는 이차적, 임시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미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자녀 양육지원은 유색인종(Kataoka-Yahiro, Ceria, and Yoder, 2004; Uttal, 1999)이나 저소득층 가족(Fuller-Thomson and Minkler, 2001; Katras, Zuiker, and Bauer, 2004)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조손가족의 조부모 이외에 일반 맞벌이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상당수가 손자녀 양육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100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 돌봄과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할머니, 할아버

지가 손자녀를 돌봐주는 양육 시간이 하루 평균 8.86시간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일차적인 양육형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Lee and Bauer, 2010). 이는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연구는 양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 및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12년 국립국어원은 '손주병'을 신조어로 선정하였다. '손주병'²⁾이라는 말이 국립국어원에서 신조어로 선정될 만큼, 황혼 육아로 인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황혼육아'라는 신 풍속도는 '손자녀 양육지원'이 할머니, 할아버지 개인의 의도, 동기, 욕구 등으로 채색되는 개개인의 삶의 영역인 동시에 개별 할머니, 할아버지의 의도, 동기, 욕구와는 별도로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 관념, 행동규범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노영주, 1998). 따라서 다양한 개인들의 실천에 한 사회의 문화적 요인들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정진웅, 2012: 16).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손자녀 양육'이 상당수의 중·노년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이 어떠한 경험이며 할머니들이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해석

- 1)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달리 성인자녀의 양육역할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손자녀 양육지원'이라고 표현하였다.
- 2) 국립국어원이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일간지와 인터넷 등 139개 매체에서 사용한 신조어를 정리한 <2012년 신어 기초 자료> 보고서에 나온 말로,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돌보며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를 가리킨다.

하는가를 탐색하는 것은 상당수의 중·노년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개념화하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적 개입의 기초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행동과 그에 따르는 감정 뿐만 아니라 행동과 감정에 대한 개인적 성찰을 포함하는 개념(한경혜, 2004)으로서의 경험을 고찰함은 경험에 대한 실체적, 총체적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자녀 양육이 일어나는 사·공간과 할머니가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실 및 그에 따른 할머니의 삶의 변화에 대해 탐색했던 본 연구자들의 선행연구(안희란·김선미, 2014)에 이어 이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할머니들의 해석에 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노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욕구와 시도가 증대되는 시기(Erikson, 1997; Hannich, 2011)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필요하다. 즉, 대부분 노년에 이르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가치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또한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한다. 노년기의 발달과업으로 ‘통합성(integrity)’ 획득이 제시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국내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고 있다.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에 대한 할머니들의 해석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양적 연구는 주로 손자녀 양육지원을 하는 할머니의 심리적 안녕 내지 복지(배진희, 2007; 강유진, 2011; 조운주, 2006), 우울(원서진, 2011), 양육스트레스(김은정, 2011), 생활만족도(정재원·김문정, 2010; 이영숙, 2010; 이현지·

윤은주, 2011)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에 대한 해석은 단순히 할머니의 심리적 안녕 내지 복지, 우울, 양육스트레스, 생활만족도로 등치 내지 환원될 수 없으며, 그 본질적 속성상 양적 연구로는 접근이 어렵다. 이상의 양적 연구의 경우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변수와 그 상호관계만을 보려고 하는 방법론상의 제약으로 할머니들의 손자녀 양육지원의 경험에 대한 해석 뿐만 아니라 경험의 내용과 의미도 잘 드러나지 않아 제한적이고 피상적인 접근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을 분석한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양육을 지원하는 할머니는 손자녀를 키움으로 인한 활력, 손주의 재물이 주는 기쁨, 아이의 성장과 성인자녀의 기반 확립에 대한 보람, 뿌듯함 등 긍정적인 경험도 하지만 신체적 부담, 피로, 자유시간 부족, 외출의 제약, 심리적 스트레스, 성인자녀와의 갈등 등의 어려움도 경험한다. 즉 손자녀 양육 지원은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이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김문정, 2007; 김문정·정재원, 2010; 김은정·정순돌, 2011; 김은주·서영희, 2007; 이현수, 2007; 이은희·하주영·이정란·황은희, 2009).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을 탐색한 이상의 질적 연구의 경우 손자녀 양육 지원은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이 공존한다는 평면적 고찰에 머물러 있다. 경험에 대한 해석은 경험을 이루는 각기 다른 맥락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더 나아가 같은 맥락이라 할지라도 행위자 내지 해석자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에 기존의 질적 연구들이 규명한 손자녀 양육지원의 양가적 성격이 바로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에 대한 할머니들의 해석이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질적 연구들은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을 내부자인 할머니의 관점에서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였다. 선행 질적 연구들은 할머니들의 계층, 노후 준비 여부, 그리고 양육지원의 비중(전담, 원조

양육)³)등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이 할머니들의 삶을 어떻게 채색하는가를 규명하려 하였기에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을 희생적으로 조망하였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은 모든 할머니들에게 희생적인 경험인 것은 아니며, 손자녀 양육지원의 의미는 개별 할머니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계층이라는 맥락은 손자녀 양육지원의 실제와 해석을 다르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층은 개인이 주어진 기회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고, 반대로 위험에의 노출 등을 규제하거나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Rosow, 1987; 박재홍, 2003에서 재인용). 따라서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할머니들의 총체적인 평가 내지 해석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개별 할머니들이 처해 있는 계층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행위주체로서의 여성노인의 관점에서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 개념을 발견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의 총체적 평가 및 해석을 고찰하고 손자녀 양육지원이라는 행위자의 주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기존 연구의 방법론에서 드러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문화기술적 사례연구는 연구대상의 경험과 의미세계를 중시하며, 그들의 관점에서 연구주체를 서술하되, 사회문화적 맥락 안

에서의 해석이라는 점을 중시한다.(Spradley, 1997; 노영주, 1998).

1. 연구관점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에 대해 교환이론(Exchange Theory)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호만스(Homans)의 교환이론은 인간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상은 최대화 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합리적 사고력을 갖추었다고 전제한다. 비용과 보상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면 교환관계에 만족하나, 비용에 비해 보상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면 교환관계에 불만족한다고 본다(Homans, 1974).

지역의 한 실태조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1)에서 취업기혼여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녀양육을 부탁하는 이유가 어린 자녀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 다른 사람이나 어린이집에 맡기는 비용이 부담돼서라는 응답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녀를 돌보는 이유에 대한 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에서 ‘자녀의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려고’(78.3%) 혹은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려고’(35%)라고 응답한 비율을 볼 때, 조부모의 손자녀양육지원은 분명히 교환이론의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등 서구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흔하지 않으나(Arthur, Snape and Dench, 2003), 한국의 조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78.3%가 사례비를 받는다고 하였고,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1.7%로 나타났다.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 65명을 상대로 그 이유를 조사

3) 선행연구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형태는 가구구성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 성인자녀의 출현 없이 손자녀와 동거하는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전담양육 형태를 취하게 된다. 반면, 손자녀 및 성인자녀와 동일가구에서 거주하는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거나 원조하는 원조양육의 형태로 개입한다(Pearson, Hunter, Ensminger and Kellam, 1990).

한 결과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므로 라는 응답이 44.6%, 다른 이유로 생활비나 용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3.8%로 나타났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1). 이러한 차이는 선물로 현금을 건네는 것이 보편적인 한국 문화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손자녀 양육지원을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연구참여자

손자녀 양육지원이 돌봄노동의 일종임을 감안, 손자녀 양육지원의 중심에 할머니가 있는 반면, 할아버지는 주변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할머니’를 연구참여자(4)로 하였다. 다양한 맥락에 놓여 있는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고자 할머니의 연령, 양육기간, 양육한 손자녀의 수, 손자녀의 연령 및 성별,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이나 타인의 지원 여부, 할머니의 양육지원시 건강, 할머니의 노후준비 여부, 성인 자녀의 직업을 고려하였다. 1년 이상 손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보고 있거나 돌보았던 할머니를 연구대상으로 모집하였는데, 양육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양육으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선정시 ‘준거적 선택’(Lecompte and Preissle, 1993)을 한 후, 참여자의 지인을 소개받는 식의 네트워크 선택(network

selection)을 하였다. 네트워크 선택을 할 때, 참여자의 사례와 비교되는 대조적 사례 선택(comparable case selection)과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도출된 논의점마다 3사례 이상 할당되도록 하는 할당선택(quota selec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참여자의 연령 분포는 58세~85세였으며, 50대가 2명, 60대가 7명, 70대가 3명, 80대가 1명이었다. 손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친할머니로서만 양육지원을 했던 사람은 4명, 외할머니로서만 양육지원을 했던 사람은 6명, 친할머니로도, 외할머니로도 양육지원을 했던 사람은 3명이었다. 양육지원시 배우자가 ‘있음’은 10명, 없음은 3명(2명이 사별, 1명은 별거)이었다. 양육지원을 하거나 했던 손자녀의 수는 1명에서 8명까지 다양했으며, 양육지원 기간도 14개월에서 25년까지 다양하였다. 양육지원 형태에서는 손자녀 양육지원시 성인자녀의 도움이 없는 ‘전담양육’이 4명, 성인자녀의 도움 있는 ‘원조양육’이 6명, 성인자녀의 도움이 있으나 크지는 않은 ‘부담 있는 원조양육’이 3명이었다. 양육지원시의 건강상태는 ‘ 좋음’이 6명, ‘보통’이 4명, ‘나쁨’이 3명이었다. 노후 준비는 ‘준비’가 8명, ‘준비가 덜 됨’은 1명, ‘준비가 안 됨’은 3명, 그리고 양육지원시에는 ‘준비’가 된 상태였는데, 양육지원 이 종료된 후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변한 사람이 1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4) 본 연구의 참여자 13명 중 9명이 연구자들의 선행연구(안희란·김선미, 2014)의 참여자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할머니들의 총체적 평가 내지 해석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기존의 참여자 중 양육지원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자 J, K, L을 제외시켰고, 새로운 참여자(연번 10번~13번)를 포함시켰다. 연번 10의 정효심(가명)씨의 경우 양육지원기간이 단기간임에도 참여자에 포함시킨 이유는 대학교수라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기에 다른 참여자와 차별되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참여자들에게도 양육지원으로 인한 삶의 변화에 관한 총체적 평가 내지 해석을 탐색하기 위한 추가 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번	참여자	연령	관계	양육시의 배우자	지원 손자녀 수	양육지원 기간	전담 /원조	양육시의 건강	노후 자립
1	심점순	58	친	유	2명	3년(현)	부원	보통	자립
2	김덕인	62	외	사별	3명	8년(과) / 4년째 쉬고 있음	전담	보통	자립 → 의존
3	이분례	69	외	별거	1명	2.2년(현)	원조	나쁨	자립
4	김순진	75	친/ 외	유	8명	15년(과) /10년째 쉬고 있음	전담	보통	자립
5	윤은심	85	친/ 외	유	7명	25년(과) /4년째 쉬고 있음	원조	좋음	자립
6	채영화	62	외	유	2명	5년(현)	원조	좋음	자립
7	고영숙	60	외	유	1명	3년(과) /32개월째 쉬고 있음	전담	좋음	자립
8	박금남	67	외	유	2명	11년(현)	원조	나쁨	의존
9	오영숙	67	친	사별	2명	9년(현)	부원	좋음	의존
10	정효심	58	외	유	1명	14개월(현)	원조	좋음	자립
11	배순례	70	친/ 외	유	5명	17~18년(과) /5년째 쉬고 있음	전담	보통	자립
12	민병순	73	친	유	1명	9년(과) / 7년째 쉬고 있음	원조	나쁨	어느 시기까지
13	이영혜	60	친	유	2명	4년	부원	좋음	의존

- 관계: 친(친할머니), 외(외할머니) /상태: 현(현재 양육 중), 과(과거에 양육하였음)
- 전담: 손자녀 양육지원시 다른 가족원의 도움 없음/ 원조: 다른 가족원의 도움 있음
/ 부원(부담 있는 원조): 다른 가족원의 도움이 있으나 크지는 않음.
-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처리함.

3. 연구절차

인터뷰는 2014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간접 참여관찰을 병행하기 위해 주로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불가피한 경우에 근처의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전 모든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은, 편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술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겠다는 것과 녹취된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비밀보장과 익명처리에 대해 그리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참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려주고 확인하였다.

인터뷰는 비구조화, 반구조화, 구조화의 3차원으로 구성된 사전인터뷰 가이드에 따라 진행하였다. 질문목록을 따르며 인터뷰를 실시하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인터뷰를 깊이 하기 위한 대조질문, 반대질문 등을 추가로 활용하였다.

녹취된 인터뷰 자료를 전사하였고, 녹음내용과 전사본을 대조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연구참여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연구자의 관찰일지와 그 밖에 참여자의 가족사진 앨범 등 참여자의 개인적인 기록을 참고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비롯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링컨과 구버(Lincoln and Guba, 1985)의 평가기준인 일관성, 사실적인 가치, 중립성, 적용성을 참고하여 연구의 질을 검증하였다. 일관성과 사실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공동연구자와 모든 과정을 공유하면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수 2명과 연구원 1명의 자문을 거쳤다. 그리고 중립성을 지니기 위해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선이해, 가정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용성을 위해 연구의 깊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례 수의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첫째, 전사본을 반복해서 읽었다. 둘째, 인터뷰 내용에서 양육지원의 의미, 해석과 관련된 진술을 찾아내고 이러한 진술을 의미단위(meaning units)로 묶어서 후회, 아쉬움, 만족으로 축코딩하였다. 셋째, 의미단위를 통합하여 9개의 개념과 3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넷째, 도출한 주제를 문장으로 기술하였다.

IV. 연구결과

노년기를 ‘통합성의 시기’로 볼 때, 노년기에 생애에 대한 만족감의 형성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에릭슨은 고동안의 삶이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자아통합감을 얻게 되는 반면, 후회스럽다고 느끼면 절망감에 빠진다고

하였다(Erikson, 1997).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할머니들의 해석은 그들의 자아통합에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에 대한 13명의 할머니들의 총체적 평가를 분석한 결과 ‘후회’, ‘아쉬움’, ‘만족’이라는 3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중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사람은 배순례 씨 한 명이었다. 그녀의 진술에서 ‘강제적 양육지원 결정’, ‘양육지원 활동의 수동성’, ‘자녀 부부의 무보상’이라는 개념이 드러났고 이러한 개념들이 ‘후회’라는 범주로 묶였다.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으나 아쉬움은 남는다’는 참여자들의 진술에서는 ‘생활상의 제약’, ‘직업을 포기’, ‘건강의 악화’의 개념이 드러났고 이러한 개념들은 ‘아쉬움’이라는 범주로 연결되었다.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만족’한다는 참여자들의 진술에서는 ‘노년기 고립감 감소’, ‘자녀에게 존재감 입증’, ‘손자녀와 친밀감 형성’이라는 개념이 드러났고, 이러한 개념들이 ‘만족’이라는 범주로 수렴되었다.

1. 후회

배순례 씨는 17~18년간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후회했지, 나중에는”이라고 하였고, ‘다시 17년, 18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돌아가면 다시는 안 봐.”라고 답하였다. 또한 ‘손자녀 양육지원’을 후회하는지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던진 가상적 질문인 ‘외손녀가 나중에 출산하여 딸에게 아이를 봐 달라고 했을 때 딸이 고민하면 뭐라고 조언하실런지요?’에 역시 “절대 못하게 해. 돈으로 쥐버려라고 하겠다”고 답했다.

1) 강제적 양육지원 결정

배순례 씨의 경우 김덕인 씨를 제외한 다른 11명의 연구참여자와 달리 가족 밖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서 노년기 존재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년기 삶의 지향점은 배순례 씨로 하여금 명시적으로 손자녀 양육지원을 거절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성인자녀와 그 배우자의 ‘들이맘’으로 ‘강제적 양육지원 결정’을 하게 되었고, ‘성인자녀들에 대한 형평성’이라는 족쇄에 매여 무려 17~18년간 손자녀 양육지원을 하게 되었다.

배순례 씨는 둘째 며느리와의 불화로 둘째 아들 손녀 2명에 대한 양육지원을 그만둔 후 첫째 아들 손자를 맡기 전 틈새였던 1년 동안 ‘생애 처음으로 가져본 직업’인 ‘방문보호사’로 활동했음을 ‘눈을 반짝이면서’ 회고하였다. “일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배순례 씨는 첫째 아들이 배순례 씨에게 맡겼던 손자를 데려가자, 다시 취직해 보려고 요양원 몇 군데를 면접 봤지만 “나이가 (오히려 요양원에) 들어올 나이라고 안 받아주”었다고 하였다. 배순례 씨는 가족 안에서 더 이상 자신의 역할, 위상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가족 밖으로 눈을 돌려 보았지만, 가족 밖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 되자, 우울할 뿐이다. 배순례 씨는 인터뷰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언제 처음으로 복용하기 시작했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의 손녀들을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울 때부터 불면증이 시작되었는데, 불면증 약만 처방받은 줄만 알았더니 처방전에 우울증 약도 있더라’ 고 하였다.

2) 양육 지원 활동의 수동성

배순례 씨는 둘째 아들 손녀 2명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키울 때, 어린이집을 언제부터 이용할 것인지, 이용한다면 오전반으로 할지, 오후반으로 할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했다.

아이 둘을 배순례 씨에게 맡기고 서울에서 주말마다 보러 오는 것이 힘들어서인지 둘째 며느리는 전근을 신청, 배순례 씨 집 인근 아파트를 얻어 아이 둘을 데리고 갔다. 그런데도 배순례 씨는 손녀양육지원에서 해방되거나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집과 며느리 집을 오가는 불편함만 가중되었다. 배순례 씨는 주말부부인 둘째 아들이 주말에 아이들을 보러 내려오는 날에만 남편(할아버지)이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살고, 그 이외의 경우는 둘째 며느리 집에서 잤다. 초등학교 교사인 둘째 며느리가 오후 4시에 퇴근한 후에도 수영, 에어로빅을 다니며 밤 9~10시경이 되어야 귀가하였기 때문이다. 주장성(assertiveness)이 약한 배순례 씨는 며느리의 귀가시간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했다고 하였다.

3) 자녀 부부의 무보상

배순례 씨의 경우 “친정 엄마가 집에서 놀아도 거기다가는 손녀를 안 맡기고 시어머니인 나에게만 맡기는 며느리가 미울 때도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손녀의 옷에 묻은 이물질을 털 것을 손녀를 때렸다고 오해’한 사건으로 둘째 며느리와 2년간 연락을 끊게 되었고, 지금은 둘째 며느리와 왕래하고 지내지만 그 사건 이전만큼의 친밀감은 사라졌다고 하였다.

배순례 씨는 둘째 며느리의 오해에 대해 ‘어이 없어’ 하였다. 하지만 연구자가 바라봤을 때 둘째 며느리의 손녀 양육지원 요청에 대해 처음에 배순례 씨가 거절했던 점, 둘째 손녀까지 추가 양육지원 요청하자, 배순례 씨가 ‘이제 아이가 둘이니 첫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 둘을 육아도우미에게 맡기라’며 재차 거절했던 점, 그럼에도 둘째 며느리가 강하게 밀어붙여 배순례 씨가 ‘내키지 않은 채로’ 손녀들을 돌보고 있었던 점을 의식한 며느리였기에 오해가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배순례 씨는 6~7년간 둘째 아들 손녀 둘을 봐주었지만 아들 부부에게서 돌아온 것은 ‘아들 부

부의 경제력에 비해 매우 적은 월 50만원의 사례비, ‘아들 부부의 배려 없음’, ‘감사해 하지 않음’, ‘손녀의 옷에 묻은 이물질을 던 행동에 대한 오해’, ‘이에 대한 사돈의 무지한 개입’ 뿐이었다. 둘째 아들부부는 아들이 거주하는 서울에의 아파트 한 채, 원룸 임대하는 건물, G시에 떠나리와 손녀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지니고 있었다. 배순례 씨는 둘째 아들부부가 서울에 원룸 임대를 하기 위해 건물을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몇 년이 지나서야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진술할 때 섭섭한 표정이 확연했다.

2. 아쉬움

1) 생활상의 제약

연구참여자 심점순, 김덕인, 고영숙 씨는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후회는 없으나 나의 생활을 포기함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였다. 심점순 씨는 “이렇게 맞벌이를 안 하면 생활이 안”되는 시대에는 “할머니가 손자녀를 돌볼 수 밖에 없어.....내가 좀 힘은 들어도 그렇게 불만 갖지는 않아.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라면서도 “내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어디 못가는.....때는 짜증도 나지. (나도) 인간이잖아”라고 하였다. 이러한 심점순 씨의 ‘후회는 없으나 아쉬움은 남는’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생각은 지인인 김덕인 씨에 대한 심점순 씨의 생각이 바뀐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 언니(김덕인)도 8년을 애기를 키웠어. 지금은 안 키워. 그 언니는 냉정해버리더라고. 나 못 키운다고 해버리더라고.....그래서 내 속으로 ‘와 언니 대단하네.’ 어떻게 저렇게 냉정하게 딱 자를까 그랬어. 그때 (나의 손녀가 태어나기 전) 생각이 그랬어. 그랬는데 지금 (내가 손자녀를 양육한 지 3년째) 생각하니까 그 언니가 현명했다. 왜냐하면 내 인생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심점순)

김덕인 씨의 경우 배순례 씨처럼 다른 11명의 연구참여자들과 달리 가족 밖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서 노년기 존재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년기 삶의 지향점은 김덕인 씨로 하여금 첫째 딸 손녀 둘만 양육 지원하고 다른 자녀들의 손자녀에 대해서는 양육 지원을 거절하는 선택을 하게 하였다. 김덕인 씨는 “(첫째 딸 손녀 둘에 대한 8년간의 양육지원) 후회 안 해. 보지 말걸 그랬다 그 생각은 없” 다면서도 “애기를 봐준다고 한 번 얘기했던 것 (첫째 딸 간호대학 입학시 약속했던 것)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 보는데.....애기만 안 보고 자기 (성인자녀)들이 관리하면 지금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데.....애기를 보면서 내 생활을 포기해야 돼. 그런데 그 나이(50대)에는 포기가 안 돼. 그러니까 짜증스러울 때가 있”었다고 하였다. 고영숙 씨 역시 외손녀 양육지원 동안 경험했던 “세상과 단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외손녀 키우는 동안에는 세상과 단절이라고 할 까요. 친구들 모임에도 거의 못 나갔어요.....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너희들 손주 키우면 너희들한테...지금 누리는 이 시간이 없다.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젊죠, 건강하죠, 이제 자녀들 어느 정도 다 키웠으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도 좀 있죠.....시간 있잖아요. “자녀 결혼시키기 전, 손주 낳기 전이 인생의 황금기야. 정말로 마음껏 누리라.” 제가 만나는 친구들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그 좋은 시기에 나는 손녀를 봐 버렸으니까 그걸 못 누리 거예요.....손녀를 키우고 난 후에 지금 누리는 이 행복감,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고영숙)

2) 직업을 포기

연구참여자 오영숙, 이영혜 씨는 손자녀 양육 지원에 대해 ‘후회는 없으나 나의 직업을 포기함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였다. 오영숙 씨의 경우 첫째 아들의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엔돌핀이 폭

폭 솟아 올라버”린다고 하면서도 “내가 애기(손자녀)를 안 보고 10년을 돈을 벌었으면 둘째 아들도 주고, 나도 노후에 참 멋지게 살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이영혜 씨의 경우 “후회는 안 하지. (그런데) 지금 우리 큰 애가 5살이니까 내가 150 벌면 50만 원만 쓰고 100만 원을 저축한다 하더라도 얼마를 벌었겠어? 그런데 아들 부부한테 월 50만원 받아가지고는 하나도 남지 않고 적자지. 그니까 돈에 대해서 좀 아쉽지. 거(직업을 그만 둔 것에 대한 아쉬움)가 20%라면 애기 키운 것(키우기를 잘 했다는 생각)은 80%라고 해야지. 조금 서운해도.”라고 하였다. 즉, 이영혜 씨의 경우 “내 생활과 직업이 없”어진 손자녀 양육지원의 비용에 비해, “(아들 부부와 손자녀들) 가까이 사니까 더 정이 있”게 된 보상을 4배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3) 건강의 악화

연구참여자 김순진, 김덕인, 심점순 씨는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후회는 없으나 건강이 악화됨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였다. 15년간 전담양육지원을 했으며, 이로 인해 “허리와 무릎”을 잃었다는 연구참여자 김순진 씨는 ‘할머니의 인생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한 50점 될까요?”라며 “오로지 내리사랑을” 하느라 “내 자신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다고 하였다. 김덕인 씨는 “내 몸은 망그러지고 내 인생, 몸은 희생했어도 자식들은 살게 됐죠.”라고 하였다.

그래도 자식들이 성공했으니까.....그게 보람이 되는 거죠.....후회는 전혀 없어요.....희생이라면 희생일까. 힘든 생활을 했지만 자녀들이 그만큼 자유스러웠으니까 후회는 전혀 없어요.....내 자신을 얘기하면서 살지를 못했잖아요, 내 육체를. 내 자신을. 하지만 자식한테는 나쁜 어머니라는 얘기를 듣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김순진)

애기만 꾸준히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애기 업고 고스톱 쳐서 골병이 들어 버렸지. 젊었을 때는 모르겠더라. 그런데 이제 지내 놓고 보니까 거기서 멍이 들었어. 그래서 척추 4번하고 5번이 이렇게 내밀어 버렸어. 허리뼈가.(김덕인)

심점순 씨는 자신이 예상하는 손자녀 양육지원 종료시기인 70세(막내 손자가 중학교 입학할 무렵)가 되면 자신이 54세 때부터 접기 시작할 취미활동인 고스톱과 산행을 재개할 체력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3년째의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58세의 나이임에도 “허리가 엄청 안 좋”아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지금 힘들”기 때문이다. 심점순 씨는 ‘손자녀가 중학교 입학해서 손자녀들에게서 해방되실 때 여가를 어떻게 보내실 것이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동 (연구참여자 김덕인 씨 집) 가서 고스톱 치고 계원들하고 산에 가는 것은 힘이 달려서 계속 못할 것 같고, 그 때는 시골에서 자연하고 조용히 살려네” 라고 하였다. 심점순 씨의 사례는 부담 있는 원조양육도 장기화될 경우 자신의 정체성의 유지할 수 있는 자원들이 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만족

연구참여자 이분례, 채영화, 정효심 씨는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자녀부부와 손자녀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할머니에게도 좋은 경험’이라고 하였다. 이분례 씨는 “애 봐 주는 것이.....참 말로 서로가 좋은 것이죠. 딸은 나 챙기고, 나는 딸네 챙기고”라고 하였다. 채영화 씨는 “저는 할머니들한테 손자녀 키워주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행복하다니까요”라며 “손자녀 양육으로 날마다 기쁘다”고 하였다. 정효심 씨는 외손자를 돌보고 있는 생활에 대해 “너무 즐거운데”라고 하였다.

1) 노년기 고립감 감소

연구참여자 이분례, 채영화, 정효심 씨는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인해 ‘노년기 고립감’이 감소되는 점에 만족해하였다. 이분례 씨는 “어른들은 외로움을 달래고 자식된 입장에서는 애들도 맡기기가 좋은 것이 서로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채영화 씨는 “지금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우울증 걸렸을 것이예요”라고 하였으며, 정효심 씨는 “지금 이 나이에 재밌게 살 수 있는 것은 애 한 3살까지 내가 열심히 키우고 유치원도 내가 데리고 다니고.....”라고 하였다.

2) 자녀에게 존재감 입증

연구참여자 이분례, 채영화, 정효심 씨는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인해 ‘자녀에게 존재감을 입증’하는 점에 만족해하였다. 할머니가 ‘자녀에게 존재감을 입증’했다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녀부부로부터의 할머니의 기여 내지 노고에 대한 인식이나 감사함의 표현이 있어야 했다. 이분례, 채영화, 정효심 씨의 딸들은 할머니의 노고에 감사함의 표현을 자주 하였다. 이분례 씨의 딸의 경우 이분례 씨의 건강을 챙기고 있었고, 채영화 씨와 정효심 씨의 딸들은 양육지원으로 여행의 기회가 줄어든 할머니를 위해 여행을 보내드리거나 할머니가 평소 가지고 싶어 하던 물건을 선물하였다. 그러나 이분례, 채영화, 정효심 씨의 딸들이 감사함의 표현으로 하는 선물은 실질적으로 이분례, 채영화, 정효심 씨의 기여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분례 씨의 경우 딸에게서 사례비로 받고 있는 월 60만원을 딸 가족의 식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채영화 씨의 경우 손자가 어릴 적 이용했던 가사도우미 비용만 딸이 부담했고 딸에게서 별도의 사례비를 받고 있지 않았다. 딸 가족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사는 관계로 딸 가족의 식사준비는 채영화 씨가 하고 있었는데, 장보는 것은 자신과 딸 부부가 반반 정도 부담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효심 씨의 경우도 외손자 양육으로 인해 육아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격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급여와 외손자 육아비용 중 딸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월 50만원 뿐이었다. 그런데도 이들이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자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부모로서의 자존감’ 때문이었다.

딸이 얘기 봐준다고 고마워서 그런지.....매달 관절약이나 뿔이나 잘해 주니까.....내 건강문제는 딸이 책임을 지죠.....그러니까 나도 건강해지고 딸도 좋고.....아무튼 애 봐 주는 것이.....서로가 좋은 것이죠. 저는 나 챙기고, 나는 딸네 챙기고, 내가 얘기 안 봐 주면 어떻게 미안해서 또 그런 것도 받는답니까?(이분례)

우리 딸도 나처럼 공주과라 아무 것도 못해요. 그래서 “너가 사람 부리면서 한 번 살아봐라.” 그리고 내가.....시도를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 우리 딸이.....“엄마, 제발. 제발.” 그래서 “그래, 애들 학교 갈 때까지만 같이 살아보자.” 그랬어요. 그 대신 딸이 나한테 또 많이 베풀어요. 여행도 보내주고, 나에게 많이 써요. 큰 거 할 때는 나를 짹짹 그냥.....(채영화)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얘기 이유식이니 우유 값이 엄청 많이 들던데. 장난감 비, 애기 옷 비. (그런 거 다 할머니가 사세요? 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아, 그럼 내가 사지. 딸이 이제 산다고 하지만은 이때나 엄마 신세져라. 그리고는 내가 사주죠. 그런데 그 비용이 정말 많더라고.....이제 여름이고, 여행은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을 딸이 대니까 또 좋지. 그리고 나 옛그저께 생일이었을 때도 딸이 뭐 선물해 주고.....(정효심)

3) 손자녀와 친밀감 형성

연구참여자 이분례, 채영화, 정효심 씨는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인해 ‘손자녀와 친밀감을 형성’

하는 점에 만족해하였다. 이분례 씨는 ‘손자를 이미 키운 친구들 말이 키운 손자가 커서도 할머니를 훨씬 더 생각한다’고 들었다며 손자가 커서도 여전히 자신을 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남들이 그러데요. 키워놓은 손주가 안 키운 손자보다 훨씬 생각한다. 그럴 것 같아요. 주말에 사위가 휴가 한 1, 2일 더 받아서 내가 외손주를 못 본지 한 3, 4일 되면..... 말 못 한 손자도 내가 한 3, 4일 있다가 가면은..... 할머니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 재미로 살지, 그런 재미로 살아.(이분례)

저녁에는 딸이 “엄마하고 자자” 하고 외손자 안으면 외손자가 안 된다고 나한테 와요. “할머니하고 잘 거야.”.....그런 것이 얼마나 이뻐요. 세상에. 엄마한테 잔다고 가 버리면 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채영화)

엄마는 엄마고, 내가 주 양육자잖아. 자기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인 나한테.....외손자의 눈은 항상 나한테 있어.(정효심)

V.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할머니들의 해석에 관하여 탐색해보는 것이었다. 13명의 연구참여자들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평가는 ‘후회’, ‘아쉬움’, ‘만족’이라는 3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중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사람은 배순례 씨 한 명이었다. 배순례 씨가 17~18년간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후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의 진술에서 ‘강제적 양육지원 결정’, ‘양육지원 활동의 수동성’, ‘자녀 부부의 무보상’이라는 할머니의 명시적인 양육지원 거절에도 성인자

녀 부부의 일방적인 요구 때문에 손자녀 양육지원을 하게 됨과 관련된 개념이 드러났고, 이러한 개념들이 ‘후회’라는 범주로 묶였다.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으나 아쉬움은 남는다’는 참여자들의 진술에서는 ‘생활상의 제약’, ‘직업을 포기’, ‘건강의 악화’의 개념이 드러났고 이러한 개념들은 ‘아쉬움’이라는 범주로 연결되었다.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만족’한다는 참여자들의 진술에서는 ‘노년기 고립감 감소’, ‘자녀에게 존재감 입증’, ‘손자녀와 친밀감 형성’이라는 개념이 드러났고, 이러한 개념들이 ‘만족’이라는 범주로 수렴되었다.

할머니들의 양육지원에 대한 평가 범주의 양 끝인 ‘후회’와 ‘만족’의 구성개념들만 추출, 비교하여 보면 ‘강제적 양육지원 결정’과 ‘양육지원 활동의 수동성’이라는 후회 범주의 개념은 ‘양육지원 의사결정의 자율성 결여’로 정의할 수 있다. 후회 범주의 ‘자녀 부부의 무보상’은 만족의 구성 개념인 ‘성인자녀에 대한 존재감 증명’과 대비되고, ‘자녀 부부의 무보상’과 ‘자녀에게 존재감 입증’이라는 개념은 ‘자녀와의 관계성’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노년기 고립감 감소’와 ‘손자녀와 친밀감 형성’이라는 만족 범주의 개념은 정서적 부양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양육지원에 대한 평가의 중심 개념은 의사결정의 자율성, 자녀와의 관계성, 정서적 부양으로 수렴될 수 있다.

한편, 평가의 중간 범주인 ‘아쉬움’의 구성개념들은 생활상 제약, 직업 포기, 건강 악화로 나타났다. 이는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후회는 없으나 아쉬움’은 남는다고 평가한 연구참여자들은 손자녀 양육지원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만족의 구성 개념인 노년기 고립감 감소, 성인자녀에 대한 존재감 증명, 손자녀와 친밀성 형성 뿐만 아니라 손자녀 양육지원의 비용인 생활상의 제약, 직업을 포기, 건강의 악화도 비중 있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기존의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을 다룬 양적 연

구에서 독립종속변수로, 질적 연구에서 중요 개념 내지 주제로 드러난 ‘생활상의 제약’, ‘직업을 포기’, ‘건강의 악화’의 개념은 본 연구에서 ‘후회’나 ‘만족’의 범주의 구성개념이 아닌, ‘후회까지는 하지 않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범주의 개념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존의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을 다룬 연구와는 달리 손자녀 양육지원이라는 경험에 대한 평가시 할머니들은 ‘생활상의 제약’, ‘직업을 포기’, ‘건강의 악화’라는 ‘개인적 비용’보다는 의사결정의 자율성, 자녀와의 관계성, 정서적 부양이라는 ‘관계적 보상’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노인들은 자신을 어머니/자녀 양육자로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세대, 계층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고 한 여성노인의 정체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박경숙·김영혜, 2005; 강유진, 2003; 김은정, 2008)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배순례 씨가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후회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손자녀 양육지원’을 후회하는 사람이 배순례 씨 뿐인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자괴감, 자살 충동, 우울증’을 갖게 했던 ‘둘째 며느리와와 불화’ 때문이었다. 둘째 며느리의 행동은 배순례 씨의 힘든 손자녀 양육 생활의 버팀목이었던 ‘부모 마음’을 무너뜨렸던 것이다.

가족 밖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서 노년기 존재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 점에서 김덕인 씨는 배순례 씨와 공통되었다. 그러나 배순례 씨와 달리 김덕인 씨가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아쉬움을 느낄 뿐 후회하지는 않’는 이유는 ‘부모로서의 존재감 증명’이었다. 첫째 딸의 대학 입학시 한 약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첫째 딸 손녀들을 8년간 키워주었던 김덕인 씨는 “손녀를 보면서 내 생활을 포기하고 봐야 했었기에 “짜증스러울 때가 있”었음에도 “그때 봐주니까 성인자녀들이 큰 수확은 했”기에 “(8년간의 손자녀 양육지원은) 후회 안 해. 보지 말걸 그랬다 그 생각은 없”다고 진술한 것이다. 김덕인 씨는 진술은 ‘부모로서의 존재감 증명’ 여부가 손자녀 양육 지원에 대해 ‘후회’하거나 그렇지 않게 함을 좌우하는 맥락임을 보여준다.

2.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세대 간 지원교환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나 주관적 안녕감을 분석한 연구(김정석·김익기, 2000; 윤현숙, 2003; 이형실, 2003; Lee and Weber, 2000; Lowenstein, Katz and Gur-Yaish, 2007; Yunong, 2012)에 의하면 일방적인 수급보다는 세대 간의 지원이 쌍방향으로 일어날 때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나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대간의 지원에 있어서 이타주의(altruism)모델(Becker and Thomas, 1976; Boulding, 1973)보다는 호만스의 교환이론이 더 설명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박금님 씨 이외의 참여자들은 손자녀 양육을 이유로 성인자녀 부부에게서 경제적 보상을 받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배순례 씨를 제외한 할머니들은 자신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박금님 씨는 교환이론에 따를 때 손자녀 양육지원의 비용 대비 편익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⁵⁾ 참

5) 연구참여자 박금님 씨의 경우 딸 가족과 자신의 식사 준비를 위해서 장 보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도 별도의 수고비로 월 100만원의 받고 있었다. 오영숙 씨는 아들 부부로부터 받는 월 120만원의 수고비에서 아들 가족과 자신의 식비를 충당하고 남는 월 25만원 정도의 금액을 적금에 넣고 있었다. 그 외의 연구참여자들은 손자녀 돌봄을 이유로 성인자녀 부부에게서 용돈 내지 사례비의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를 받고 있거나 아예 받지 않고 있었다. 박금님, 오영숙 씨를 제외한 참여자들은 받고 있는 30만원~ 60만원에서 ‘손자녀 돌봄 비용과 자녀 가족의 식사준비를 위해 장 보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었기에, 자신에게는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여자였음에도 자녀부부의 생활시간구조 속에 자신의 일상생활을 ‘당당하게’ 섞어 넣고 있는 다른 참여자들과 달리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였다. 박금님 씨는 “내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자식한테 돈 안 받고 키워주고 싶지, 내 마음은. 그런데 안 받고 키워줄 능력이 안 돼, 내가.....딸, 사위에게서 돈 받는 것도 나는 미안해.” 라고 하였다. 박금님 씨는 ‘사위가 잘 해주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이제 우리 딸은 엄마가 있으니까 좋은데.....(한편으로) 사위도 더 낫겠지 장모가. 남(가사도우미) 데리고 있는 것보다.” 라며 ‘사위가 (아마도) 자신이 딸네 가사를 맡는 것이 남이 맡는 것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할’ 거라 추측하고 있었다. 이처럼 박금님 씨가 사위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단지 사위가 자신을 ‘남보다는 낫다고 여길’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박금님 씨가 실질적으로 하는 낮은 강도의 가사노동에 비하여 딸 부부에게서 받는 사례비가 크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 점에 대해 사위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였다. 박금님 씨의 사례는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인한 할머니와 성인자녀간의 교환관계와 이로 인한 만족과 불만족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할머니들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교환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는 손자녀양육지원에 대한 해석의 범주 양 끝인 ‘후회’와 ‘만족’을 구성하는 개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자녀 양육지원’시 할머니들의 비용-보상간의 인식 내지 비교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교환관계와는 다른 점이 나타났다. 배순례 씨를 제외한 할머니들은 생활상 제약, 직업 포기, 건강 악화라는 ‘일신상의 비용’보다는 노년기 고립감 감소, 성인자녀에 대한 존재감 증명, 손자녀와 친밀성 형성이라는 ‘관계적 보상’을 더 크게 느끼고 중요시하기에 양육지원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고 답한 것이다. 이는 할머니들이 ‘일신상의 비용’보다는 ‘관계적 보상’이라는 편익에 더 가중치를 둔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머니들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평가는 ‘이질적’인 성격의 비용-보상의 구성요소들 간의 ‘평면적’ 비교가 아닌 ‘관계적 성격’의 보상에 가중치를 두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할머니들은 자신의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을 평가할 때 단순한 교환이론적 해석이 아닌, 다른 요소들에 비해 부모로서의 역할 규정과 역할 만족도에 큰 비중과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손자녀 양육에 개입하지 않는 노부모가 원조양육이나 전담양육 노부모보다 높은 부모역할 만족도를 보인다는 서구 문화권의 연구결과(Hayslip and Shore, 1998)와 대비되는 최근 국내의 연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손자녀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중·노년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육아정책연구소, 2014), 이는 할머니의 연령, 혼인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등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나온 결과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손자녀 양육 경험이 할머니의 삶의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데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중치 비교’라는 ‘수정된’ 교환이론적 해석은 기존의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을 다룬 연구들이 내부자인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결과론적 양상에만 초점을 두고 할머니들의 의도, 동기를 무시하였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연구들은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스스로 선택한 희생’이므로 본인이 안 하면 그만인 일’로 축소화하여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환기와 공론화, 그를 통한 사회적 지원방안 개발의 걸림돌이 되었다.

자신의 돈이 더 들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2) 실천적 함의

할머니들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해석’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기존의 회생담론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시사한다. 손자녀 양육지원이 중·노년기 여성에게 보편적인 경험이 된 상황에서 손자녀 양육지원의 부정적 영향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 경험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생활상 제약, 직업 포기, 건강 악화를 아쉬움의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이에 미치는 결정적인 맥락은 양육지원의 비중(전담, 원조양육)이었다. 젊었을 때와 달리 육아가 ‘힘에 부치고 ‘전담양육’으로 ‘건강을 잃었다’는 참여자들의 진술은 노화가 진행되는 할머니의 경우 신체상대상 본질적으로 ‘전담양육’과는 거리를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유의 제약’에 대한 참여자들의 진술은 모임이나 활동이 즐기 쉬운 노년기 또는 노년으로의 이행기의 장기간에 걸친 손자녀 ‘전담양육’이 할머니들의 정체성 확인의 자원을 손자녀로만 한정시키게 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손자녀 양육지원의 긍정적 경험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하나의 양육형태로 인정하는 한편, 할머니들이 손자녀 양육지원을 하면서 느끼는 아쉬움의 구성개념인 비용(생활상 제약, 직업 포기, 건강 악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 사회적 지지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 운영의 정상화⁶⁾, 유연근무제도 등 일·가정 양립정책 활성화와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성인자녀들의 물질적·정신적 보상의식 개선을 통해 성인자녀들이 할머니와 함께 손자녀를 양육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배순례 씨와 김덕인 씨의 사례는 가족 밖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서 노년기 존재

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할머니들에게 손자녀 양육지원이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도 시사한다. 할머니들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국가·사회적 지지체계의 구축이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1) 정진웅(2012). 노년의 문화인류학. 파주: 한울.
- 2) 강유진(2003). 한국여성노인들의 노년기 적응과 노년기 삶의 모습에 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131-146.
- 3)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1). 맞벌이 가정내 조부모의 양육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 영아가정을 중심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4) _____ (2011). 손자녀 돌봄과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 : 돌봄 상황, 양육지각, 자원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73-97.
- 5) 김문정(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양육부담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7(6), 914-923.
- 6) 김은정(2008). 여성 노인의 생애구술을 중심으로 본 노년기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지속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0(1), 27-67.
- 7) 김은정(2011). 손자녀 대리양육 조모의 적응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1, 77- 213.
- 8) 김은정(2011). 영유아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취업모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9) 김은정·정순돌(2011). 손자녀 대리양육 조모의 적응경험에 관한 연구 : 취업모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1, 177-213.

6) 2013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환경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발표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은 12%에 그쳤고, 평균 사용기간도 7.9개월에 불과하여, 법정 보장기간인 1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 김은주·서영희(2007).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실제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75-192.
- 11) 김정석·김익기(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12) 노영주(1998).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3) 박경숙·김영혜(2005). 생애를 통해서 본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역할의 의미. 경제와 사회, 68, 133-160.
- 14) 박재홍(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7(3), 1-23.
- 15) 배진희(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양육형 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 67-94.
- 16) 안희란·김선미(2014). 맞벌이 자녀를 둔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 양태와 그에 따른 삶의 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1-20.
- 17) 육아정책연구소(2014). 손자녀 양육 경험이 중·노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소.
- 18) 윤현숙(2003). 노부모와 자녀간의 지원교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3), 15-28.
- 19) 이영숙(2010). 조모의 손자녀 돌봄만족과 관련변인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취업모가 정동거조모와 비동거조모의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9(1), 15-26.
- 20) 이은희·하주영·이정란·황은희(2009). 맞벌이 자녀를 둔 조모의 손자(녀) 돌봄 경험. 질적연구, 10(1), 1-13.
- 21) 이현수(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심리적 체험연구. 질적연구, 8(1), 67-78.
- 22) 이현지·윤은주(2011). 영유아 양육책임유형에 따른 조모의 삶의 만족도와 자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4), 179-200.
- 23) 이형실(2003). 농촌 노인의 세대간 사회적 지원 교환과 생활만족: 성별 및 연령 집 단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4), 57-63.
- 24) 원서진(2011).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3세대 가족과 비3세대 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33-56.
- 25) 정재원·김문정(2010).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의 생활만족도 및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3), 288-296.
- 26) 조윤주(2006).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3), 1-21.
- 27) 통계청(2013). 2012년 맞벌이가구 통계. 통계청.
- 28) 한경혜(2004).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24(4), 87-106.
- 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100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 돌봄과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여성노동의 변화와 여성·가족의 삶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1) Arthur, S., Snape, D., & Dench, G. (2003). The moral economy of grandparenting. London: National Center for Social Research.
- 32) Becker, G. S., & Thomes, N. (1976). Child endowments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 142-163.
- 33) Boulding, K. E. (1973). The economy of love and fear: A pre-face to grants economics. Belmont, CA: Wadsworth.
- 34) Erikson, E. H. (1997).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paperback.
- 35) Fuller-Thomson, E., & Minkler, M. (2001).

- American grandparents providing extensive child care to their grandchildren: Prevalence and profile. *The Gerontologist*, 41, 201-209.
- 36) Hank, K., & Buber, I. (2009). Grandparent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Findings from the 2004 Survey of Health, Aging, and Retirement in Europe. *Journal of Family Issues*, 30, 53-73.
- 37) Hannich, H. J. (2011). "A Salutogenic Analysis of Developmental Tasks and Ego Integrity vs. Despair"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3(4), 351-369.
- 38) Hayslip, B. & Shore, R. (1998). Custodial grandparenting and the impact of grandchildren with problems on role satisfaction and role meaning. *The Journal of Gerontology*, 53(3), S164-S173.
- 39) Homans, G. C. (1974).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40) Kataoka-Yahiro, M. R., Ceria, C., & Yoder, M.(2004). Grandparent caregiving role in Filipino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11, 110-117.
- 41) Katras, M. J., Zuiker, V. S., & Bauer, J. W.(2004). Private safety net: Childcare resources from the perspective of rural low-income families. *Family Relations*, 53, 201-209.
- 42) Lecompte, M. D, & Preissle, J.(1993).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43) Lee, J., & Bauer, J. W.(2010). Profiles of grandmothers providing child care to their grandchildren in South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1, 455-475.
- 44) Lee, Min-Ah and Margaret J. Weber(2000) "Intergenerational Reciprocal care and Elderly Living Arrangem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3), 129-142.
- 45)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 46) Lowenstein, A., Ruth, K. and Nurit, G. Y. (2007). "Reciprocity Child Exchang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 63(4), 865-883.
- 47) Pearson, J. L., Hunter, A. G., Ensminger, M. E., & Kellam, S. (1990). Black grandmothers in multigenerational households: Diversity in family structure and parenting involvement in the Woodlawn Community. *Child Development*, 61, 434-442.
- 48) Spradley, J. (1997). *The Ethnographic Interview*.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49) Uttal, L. (1999). Using kin for child care: Embedment in the socioeconomic networks of extended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845-857.
- 50) Yunong, H. (2012). "Family Relations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ople: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wo Different Hukous in China" *Aging and Society*, 32(1), 19-40.

- 투 고 일 : 2014년 12월 31일
- 심 사 일 : 2015년 2월 6일
- 심사완료일 : 2015년 2월 6일